

세계수영축제, 해외홍보 본격화

2018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유럽수영연합에 지원·협력 요청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해외 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직위 조직위 사무총장은 지난 1일~3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크란을 방문해 2018유럽수영연합(LEN) 마스터스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유럽 각국의 임원과 선수들에게 내년 광주대회를 알리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8월 26일~9월 9일 열리는 LEN 마스터스선수권대회는 유럽수영연합이 주관하는 대회로 유럽 전역에서 경영·다이빙·수구·아티스틱수영·오픈워터수영 등 5개 종목에 모두 5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조직위는 마스터스대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선수·코치를 대상으로 '마스터스 홍보대사 프로그램(peer to peer program)'도 운영한다.

유럽과 아메리카 출신 30명으로 구성



9월 1일부터 3일까지 슬로베니아 크란 올림픽수영장에 마련된 광주 홍보관. /광주광역시

필 마스터스 홍보대사들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동호인 미팅, 인쇄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광주대회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마스터스 동호인들의 의견과 반응을 조직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직위는 마스터스 홍보대사들에게 대회 참가비와 체재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경영과 수구 경기가 열리는 슬로베니아 크란 올림픽수영장에 광주대회 홍보관을 설치하고 대회 준비 상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의회도 내년 광주대회의 예산 증액과 북한 선수단 참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섰다.

/광주=오중일 기자 raser506@metroseoul.co.kr

이재명-경기도 국회의원들

“지역발전에 與野 없다” 한목소리

이 지사 “당 가리지않고 도움돼야” 도 40개 사업 국비지원 확보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당파를 초월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 지사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36명이 함께한 가운데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정을 하는데 있어서 당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면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공식 소통채널을 만들어주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경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원유희자유한국당의원도 “정기국회가 시점에 경기도와 경기지역 국회의원 한 자리에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경기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경기 지역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함께 현안을 풀어간다면 도민으로부터 많은 박수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를 받을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적극 협력의사를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당대표)은 “경기북부 수해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신경써달라”며 “경기도의 도시철도 구축계획이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총 40개 사업 1조7967억1400만원 규모의 2019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밝힌 주요 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 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에 1364억4600만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255억100만원 ▲한탄강 수상철리길,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228억1600만원 ▲저상·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119억5100만원 등이다.

또한 도는 버스운전자 처우개선에 대한 국비 지원, 지방이양일괄법·자치경찰법 등 자치분권 강화에 필요한 3개 입법 조기 추진, 경마장 등 실제 경기장이 있는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배분을 현행 5:5로 유지해 줄 것 등 23개 정책 현안을 건의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파주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시 과태료”

파주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차

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돼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협의 신청대상부터 적용되고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주차의 금지 장소)가 개정돼 소화수설비, 송수구,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도 금지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최문상 파주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법 시행 후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파주=김승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원가공개 시작... 경기도시공사부터 본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첫 번째로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원가공개에 나선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건설공사원가 정보공개방을 마련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공개대상 공사건수는 총 58건으로 일반공사 49건, 공공주택사업 9건(행복주택 8건, 영구임대주택 1건)이다. 계약금액은 일반주택 8,111억7400여만원, 공공주택사업 1,634억원 등 총 9,745억7400여만원이다.

공개내역은 계약금액을 비롯해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내역서, 하도급내

역서, 원하도급대비용 등 5개 항목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입찰공고문에 공사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10억원 이상 공사입찰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가 공개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건설원가공개를 시작으로 도 홈페이지에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간공동건설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는 민간참여임대주택의 경우 이번에 공개가 완료됐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공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르면 9월 중순경 공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김승열 기자

진도군 2030년 진도읍 외 6개 면 소멸 위험

저출산·고령화 따른 인구 감소 탓

오는 2030년을 전후해 전남 진도군 7개 읍면 가운데 진도읍을 제외한 군내, 고군, 의신, 지산, 임회, 조도 6개 면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없어질 가능성이 큰 소멸위험지구로 분류됐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에는 89개(39%)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 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

지수를 계산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에 속하고, 0.2 미만이면 조만간 사라질 위험에 처하는 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진도군의 소멸지수는 0.223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교통·주거·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평택·당진항 운항 선박, 항로표지 안전점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가을 항행철을 대비해 아산만, 평택·당진항 및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118개소에 대해 3일부터 2개월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항로표지 안전점검은 기능점검, 건축물 및 업무용 선박 등 항로표지와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또한, 항로표지의 소등, 유실 등 기고장 및 사고에 대비하여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해양사고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안전한 바닷길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가을 항행철 바닷길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항로표지 시설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16개 노선 무인단속

인천시가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현재 시내도로 18개 노선(BRT, GRT 포함), 123.47km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5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18개 노선 가운데 청라~강서간 BRT 구간, 청라국제도시역~가정사거리 GRT 구간과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된다. 나머지 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 운영된다.

청색선 복선(2줄) 구간은 24시간 전일제 운영 노선이며, 청색선 단선(1줄) 구간은 출·퇴근제 운영 노선이다. 버스전용차로 설치구간에서 우회전 및 진출입 시, 전용차로 점선구간에서 전·출입하면 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4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6만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최초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다음 달부터는 60개월에 걸쳐 매달 1.2%씩 추가돼 총 75%의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된다.

/최영주 기자 choiyj@